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이어서-

두리원 대 표 김 해 롱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11. 피가 맑으면 만병을 다스린다

2. 전립선염에는 프로폴리스보다는 꽃가루

모든 약리작용은 혈액을 통해서 나타난다. 전립선은 단단한 막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항생제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 약도 많고, 치료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전립선염은 성병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병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인제대 조인래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200명의 전립선염 환자들 가운데 30%(72명)는 성병(요도염)과 무관한 환자들이었다"고 했다.

전립선은 많은 낭포로 구성되어 있고 전립선액은 전립선요도(전립선관)를 통해 분비된다. 소변이 이 관들을 통해 거꾸로(역류) 전립선에 들어가게 되면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소변 속에 들어 있던 대장균이나 다른 세균에 의해 감염이 되면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전립선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킬 때 전립선염이 된다. 모두가 외도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체내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도 감염되는 병이다.

국내에서 프로폴리스가 알려진 것은 정도영(양봉계 주간·작고) 선생을 통해 알려졌을 때 프로폴리스가 난치병 중의 하나인 전립선염에 좋다는 외국의 문헌을 소개한 것이 프로폴리스를 알리는 효시가 되었다.

프로폴리스 정제법은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 있는 상태 그대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친구에게 갔다준 기억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자연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1개월만 먹어 보자면서 주었다.

7년전(89년) 어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니 [전립선 특효 프로폴리스]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프로폴리스 효과 중에서 제일 적은 데가 전립선염인데 저런 선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다. 꽃가루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60~70%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을 때는 10~15%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낮은 확률이다. 그러니 비대중에는 다르다. 프로폴리스가 또 효과가 적은 데가 여성 대하증과 결핵이다. 카리모바

(Karimova)씨의 연구에 의하면 결핵환자 45명에게 10~15%의 프로폴리스를 사용했을 때 완치된 사람은 2명이라고 했다. 이것은 4.4%의 완치율이다. 10% 미만의 효과를 갖고 효과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 결핵환자에게는 토끼에 마늘을 넣어서 몇 마리를 삶아 먹어도 낫는 수가 많다.

전립선염, 대하증, 요도염, 중이염 등은 모두 세균에 의한 감염이다. 즉 농이 나오는 세균 질환에는 프로폴리스가 약하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자연의학에서는 전립선염에 꽃가루를 최고로 친다. 프랑스 의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전립선염에는 꽃가루가 84%의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순수한 꽃가루만 사용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데는 다소 의아심이 생긴다. 병원에서 나온 통계이므로 화학약품(항생제)과 병행시켰을 때 나타난 효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학상 84%의 완치는 정말 놀라운 수치다.

필자는 25년간 꽃가루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맛만 보아도 무슨 꽃가루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고, 이 꽃가루는 어떤 작용에 의해 어느 질환에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자신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전립선염에 여성초, 이노작용을 겸한 가공 꽃가루(바이오폴렌)에 루틴이 들어있는 자연산 꽃가루를 곁해서 2개월 사용하면 백혈구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농이 나오는 세균에는 약하다. 그러나 여성초는 정반대다. 여성초는 심한 여성 대하증에도 2개월이면 낮게 되고 재발된 중이염에도 2개월에 재발 없이 완치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전립선염에는 꽃가루가 최고이다. 잘 낫지 않는 경부임파선은 꽃가루만 6개월 복용하면 단단한 명우리도 삭아진다. 꽃가루가 경부임파선염에 하는 작용은 전립선염에도 유사작용을 하게 된다.

여성초는 균을 직접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꽃가루는 그런 작용은 하지 않는다. 대신 체내 저항력을 강화시켜 균의 서식처를 제거시킴으로써 생존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근래에 와서 개발한 [류마-21]이 있다. 여기에 주원



료는 키토 올리고당, 상어연골, 프로폴리스이다. 이것은 염증을 해소시키는 작용들이 있다. 여기에 가공시킨 [바이오펜]과 같이 전립선염 환자들에게 사용했을 때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자다가 2번이나 일어나서 소변보던 분이 2개월 복용으로 그 증세가 없어졌다고 하는 분도 여럿이 된다. [바이오펜]은 오줌싸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3. 프로폴리스와 스테미너

프로폴리스와 관련되는 몇권의 책에서는 프로폴리스가 부작용도 없고, 정력도 좋게 한다고 되어 있다. 정말 책 내용대로 부작용도 없고, 스테미너도 좋게 하는 것일까? 하는 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프로폴리스의 주원료는 나무의 진액물질이다. 나무에서 진액을 내는 목적은 자신(식물)을 해치려고 하는 적(바이러스,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상처를 빠른 시일내 재생시키기 위해서 내는 것이 진액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보다 부작용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프로폴리스는 자연 항생물질이다. 자연이라는 명칭이 하나 더 있을 뿐이지 항생물질 자체가 스테미너를 좋게 할 수는 없다. 스테미너(정력)를 좋게 하려고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시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거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아연) 가운데도 특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이 프로폴리스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스테미너를 좋게 하는 체질은 있다. 몸이 비대하고 혈이 탁하여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스테미너를 좋게 할 수 있다. 스테미너의 최대의 적은 피로다. 피로가 많던 사람이 피로가 없어지면 스테미너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프로폴리스에는 비타민 P의 작용에 의해 청혈작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소량으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지만 대량으로 사용할 때는 도리어 스테미너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흔히 말하는 멍현상이 프로폴리스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피로와 약한 부위의 통증이다. 그러면 정력은 도리어 감퇴된다.

몸이 비대하고, 배까지 나온 사람이 힘도 있어 보이고, 정력도 강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다. 몸이 비대하면 체내의 독소가 많고, 하체가 약한 사람치고 정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 정력은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된 사람이 세고, 몸이 다소 여윈 듯한 사람이 강하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해당된다. 프로폴리스는 정력을 좋게 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체질에 따라 좋게는 할 수 있다.

봉산물 가운데 스테미너를 좋게하는 것은 꽃가루와 로얄제리이다. 꽃가루는 꽃의 수술이다. 꽃의 수술이 스태만(Stamen)이다. 이것이 복수가 되면 es나 s가 붙는 것이 아니고 스테미너(Stamina)가 된다. 꽃가루는 정력, 기력, 젊음을 상징하고 있다.

로얄제리(Royal Jelly)는 여왕벌의 먹이다. 여왕벌이 되는 알이나 일벌이 되는 알은 동일하지만, 먹는 먹이에 따라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 여왕벌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루에 1,000~2,000개의 알을 산란하는 정력가이고, 일벌보다 10배나 더 오래 산다. 로얄제리는 장수와 정력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먹는다 해서 며칠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며칠만에 좋아진다면 최음에 의한 약리작용이기 때문에 장기복용하면 도리어 몸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꽃가루나 로얄제리는 몸의 기능을 좋게 함으로써 발산되는 정력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4. 어린이 기관지염에 뛰어난 효과

밤꽃의 개화가 끝나는 7월 초가 되면 양봉인들은 농약과 논물에서 벌의 피해를 막고, 8월 초부터 피기 시작하는 싸리(80년도 이후로는 생산이 잘 안됨)와 뽕나무 꿀의 채밀을 위해서 깊은 산골은 찾아가게 된다. 이곳에서는 1년중 2~3개월은 외부인과 차단되는 생활도 하게 된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친지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간혹 "우리집 아이가 기관지가 안좋아서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야생 벌집을 좀 구할 수 없을까?"하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시장통에서 야생 땅벌집을 파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렇게 파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비 오는 날을 택하여 땅벌집을 파내기도 했고, 나무에 붙어 있는 둥근 말벌집을 그대로 채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다.

야생 벌집을 구했을 때는 직접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꿀 문은 밀랍을 보내주기도 했다. 기관지에는 꿀만 먹는 것보다 꿀이 문은 밀랍을 그대로 먹는 것이 기관지에 좋다는 문헌을 여러 곳에서 접했기 때문이다. 그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야생 벌집이나 양봉의 벌집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꿀을 먹고 낸 밀랍을 갖고 만든 것이 벌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생 벌집은 외벽을 튼튼하게 해야 하므로 식물의 진액 물질을 첨가시켜 양봉 벌집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진액물질이 기관지에 효과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필자가 수차에 걸쳐 발표한 프로폴리스가 야생 벌들이 집을 만들 때 세균의 침입도 막고, 집 자체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소량의 양이지만, 혼합시키는 물질이 바로 프로폴리스이다. 프로폴리스는 50℃이상 열을 가하면 효소의 파괴로 효력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효력이 있는 것은 효소 이외의 성분에 의해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폴리스는 소아 기관지염에는 100%의 효과를 나타낸다.

야생벌집을 구해 먹어도 낫지 않던 부산의 C어린이는 알레르기 천식까지 있어서 겨울에는 항상 마스크를 해야 했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도 외출을 삼가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 이 아이는 체력 보강을 위해 꽃가루를 먹으면서 프로폴리스도 복용했다. 3개월만에 기관지가 깨끗이 낫게 되었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전에 감기가 들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하루만에 낫는 것을 보고 의사가, "너 같으면 병원 굶어 죽겠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해주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건강체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어린 아이가 한달 먹을 프로폴리스를 야생벌집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수 kg을 먹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분량이다. 어른은 어린아이에 비해 효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지만, 어린이에게는 저항력 강화 물질과 병행했을 때는 그 위력은 대단하다. 1개월만 먹어도, 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난다.

부산 초음에 사신다고 하는 할아버지 한분은 지나가다가 상호가 생각나서 들렀다고 했다. "7살 되는 자기 손녀 아이가 기관지가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초음 교회에 다니는 교인 한 분이 권해서 [프로폴리스(프로폴리스 제품)]을 먹었는데 1통을 먹고 그렇게 심하던 기관지염이 깨끗이 낫게 되어서 지나가는 길에 인사차 들렀다"고 했다. 손녀가 얼마나 심했으면 상호를 기억하고 찾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프로폴리스 주식회사 사장은 프로폴리스가 어린이 기관지염에는 100%의 치료 효과가 있고, 압에는 80%의 치료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어린이 기관지염에는 95%이지만, 위염이나 위궤양에는 100%의 효과가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본 제품의 특징

본 제품은 꿀을 생산하는 영농인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 제품 "전기밀도"(칼)를 개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철로 만들어서 물을 데워 그곳에 담귀서 열을 얻어 사용했지만 본 제품은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하여 녹이 슬지 않아 위생적이며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므로 간편하고 고정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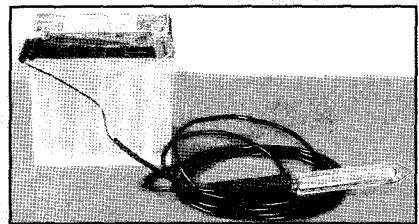
종류는 AC전기 220V용과 DC전기 12V용이 있으므로 220v용은 일반 가정전기에 꽂아서 18분후에 사용하며, 12V용은 DC전기가 없으면 1톤트럭의 배터리에 연결해서 18분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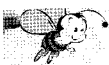
구입방법은 이메일 spark2523@hanmail.net 로도 가능하며 아래 전화와 팩스로 연락 주시고 계좌에 입금하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전기밀도 가격은 1개당 50,000원이며 20개 이상 단체주문시에는 1개당 45,000원입니다.

※전화주시면 카다로그를 보내드립니다.

전화 : 011-837-2523 팩스 : 055-332-0986
 농협 : 178314-52-017321(예금주 : 박성호)





국산 프로폴리스의 고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

주관기업 : 가보농산(주)김 희 성 대표이사(본협회 부회장)
위탁연구기관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지단호에 이어서-

제3장 결과 및 고찰

제2절 프로폴리스의 추출액 및 농축액 제조

1. 추출 조건에 따른 추출액 제조

다. 나라별 원기에 따른 프로폴리스의 함량 효과

프로폴리스는 채집한 지역 즉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그리고 추출방법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차이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산, 호주, 브라질 및 중국산을 구입하여 추출방법에 따른 각각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추출 수율을 측정하였다. 외국의 원기를 관찰하여보면 압착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형상을 가진 것으로 비교 분석 하기 때문에 국산 원기중 소비광의 윗부분에서 채취하여 압착한 원기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국산의 원기와는 다르게 형상이 곤약처럼 생겼으며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산의 경우도 브라질산 및 호주산과 유사한 값을 보였지만 중국산의 경우는 불순물이 매우 많았다.

국산과 호주산의 경우 추출 수율이 비슷하였지만 중국산에 비해 추출수율이 거의 2배 이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중국산의 경우 국산에 비해 추출 수율이 매우 낮아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국산 프로폴리스도 채취 방법과 원자재에 따라 수율이 저조한 것도 있었음)

이상과 같이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추출 수율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 원기의 계절별 채취 시기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표준으로 설정하기에는 난해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나라별 추출 방법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수율 변화

플라보노이드 함량(mg%)추출 수율(%)

국가	처리 방법	플라보노이드 함량(mg%)	추출 수율(%)
국 산	무처리구	5.4147	76.5850
	효소처리	5.7476	77.9150
브라질	무처리	4.0109	41.7970
	효소처리	4.2532	40.3550
중 국	무처리	1.5608	17.2730
	효소처리	2.3344	22.7570
호 주	무처리	6.1848	86.5860
	효소처리	6.8285	86.3080